



기업 업황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비관적 경기 전망 유지

박정희 선임연구원

■ 지난 7월 2일 일본은행(BOJ)이 발표한 2/4분기 대기업 제조업체의 단칸지수¹⁾는 -1을 기록해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- 대기업 제조업체의 단칸지수는 지난해 4/4분기와 올해 1/4분기에 -4를 기록하였으나, 2/4분기에 다소 개선된 상황임.
 - 중소형 제조업체들의 단칸지수는 전분기 -7보다 1포인트 개선된 -6을 기록하였으나, 소형 제조업체들의 단칸지수는 전분기 -10에서 2포인트 하락한 -12를 기록하였음.
 - 한편, 일본 제조업체들은 단칸지수가 3분기 연속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제조업 경기가 비관적인 상태라고 인식함.
- 업종별로는 대기업 제조업체 16개 중 7개가 개선되었으며, 특히 에코카 보조금 효과로 신차 판매가 확대되면서 자동차업종이 4포인트 상승한 +32를 기록해 2010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임.
 - 그 외 TV 등 가전제품의 판매 부진으로 고민하던 전자·기계 업종의 단칸지수도 재고 조정을 통해 3포인트 상승한 -14를 기록해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.

■ 한편, 대기업 비제조업체의 단칸지수는 전분기대비 3포인트 상승한 +8을 기록해 4분기 연속 업황이 개선되고 있음.

- 대기업 비제조업체의 단칸지수는 2008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, 향후 전망치는 +6으로 소폭 둔화가 예상되고 있음.
 - 중소형 비제조업체들의 단칸지수는 전분기대비 2포인트 상승한 -9로 나타남.

1) 단칸지수는 일본 기업들이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기관측을 나타낸 지표로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조사(자본금 2,000만 엔 이상의 민간기업 22만여 곳을 대상)를 바탕으로 일본은행(BOJ)이 발표하고 있으며, 해당 기업의 경기 전망과 예상 매출액, 고용계획 등을 조사하여 '경기가 좋다'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'경기가 나쁘다'고 답한 기업의 비율을 뺀 수치임.

-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+52를 기록해 최고치를 보였으며, 대기업 건설업이 전년대비 6포인트 상승한 -1을, 숙박 및 요식업이 11포인트 상승한 +3을 기록하였음.
 - 지난해 발생한 대지진의 재건 정책에 따른 부흥 수요 확대로 건설업이 상승세로 전환했으며, 소매 등 개인 소비 관련 업종이 흑자를 유지하면서 관련 업종이 상승세를 보임.
- 반면,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혼란으로 엔화 강세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올해 평균 달러당 엔화 환율을 78.95엔으로 예상해 지난해 평균 환율인 79.27엔에 비해 평가절상된 상태라 엔화 절상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임.

(일본은행 外, 7/2)